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관광산업의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4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출시 발표

뉴욕주 전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새로운 팬데믹 후 관광 캠페인, 방문자에게 "와서 참여하세요"라고 권유

첫 번째 단계는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자가 잠들지 않는 도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

뉴욕시 관광 명소 확인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4천만 달러 규모 글로벌 캠페인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주정부가 지역, 국내 및 국제 방문자를 환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캠페인은 여름, 가을과 겨울 관광 시즌을 통해 주의 모든 지역에서 관광 명소를 홍보 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첫 번째 단계는 뉴욕시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국제 시장의 디지털 아울렛 및 국내 및 지역 시장의 방송 TV에서 실행됩니다. 이 캠페인의 두 번째 단계에서 대상으로 할 장소에는 뉴욕시 외곽의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명소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관광 산업은 1년 이상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구축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의 세계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뉴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왔음을 알릴 것이며, 이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은 여행객들에게 뉴욕주와 같은 곳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관광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지사의 행정 전반에 걸쳐, 관광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는 기록적인 수준의 방문자 지출과 경제적 영향을 창출하면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업계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경제의 부문을 성공적으로 재개하여 뉴욕주가 다시 한 번 방문객을 초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팬데믹 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함에 따라 뉴욕주는 잠재적인 방문객들이 앰파이어 스테이트를 잊을 수 없는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수많은

옵션을 갖춘 안전한 목적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은 뉴욕주가 다시 열릴 때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지를 강조하여 주의 관광 산업의 부흥을 촉진하고 경제의 재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장소는 뉴욕시를 대표하는 목적지, 어트랙션, 명소, 음악을 강조합니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Washington Square Park), 모이니한 트레인 홀(Moynihan Train Hall), 타임스퀘어(Times Square),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등과 같은 전통적인 표준 테마인 뉴욕, 뉴욕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보여줍니다. 뉴욕 스타일의 피자, 센트럴 파크 동물원(Central Park Zoo), 차이나타운(Chinatown)과 같은 방문객이 좋아하는 장소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지하철, 스테튼 아일랜드 페리(Staten Island Ferry), 브로드웨이(Broadway), 뉴욕시 스카이라인 등 뉴욕의 전형적인 곳 사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문화, 비즈니스 및 음식으로 구성된 주의 광대하고 명성 높은 네트워크의 넥서스로서 뉴욕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커미셔너 대행,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은 우리 경제의 초석이며, 엠페이어 스테이트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독특한 장소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관광 산업과 그에 의존하는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동안 큰 고통을 겪었으며, 다시 산업에 재투자하고 방문객을 환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시험되고 강화된 뉴욕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묘사하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여러분이 이 캠페인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은 여행객들이 뉴욕주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초대하게 되어 기쁘며, 우리의 프로모션 플랫폼 네트워크 전반에서 이러한 환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평생의 추억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뉴욕에서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관광 자문위원회(Tourism Advisory Council) 위원장 Cristyne Nichol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아이 러브 뉴욕이 뉴욕이 다시 열리고 있으며 관광 부문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빅 애플(Big Apple)과 엠페이어 스테이트에 주민과 방문자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뉴스를 확산하기 시작함에 칭찬을 보냅니다. 뉴욕시는 오랫동안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관광 역할을 해 왔으며 주의 경제를 더욱 강하게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경제적 엔진이 관광에 투자하는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뉴욕시의 휴가를 계획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욕주 전역의 명소와 목적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